

■ 괴운(槐雲) 칼럼



군자 유구사(君子有九思)와 유삼계(有三戒)

권해조(權海兆, 한국국방외교협회 고문·북아공파 36세)

유교의 근본 문헌으로 유가(儒家)의 성전(聖典)으로 불리는 논어(論語) 계씨편(季氏篇)에 보면 “공자가 말하기를 군자에게는 아홉 가지 생각하는 일이 있다.”고 하였다. 그 내용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시사명(視思明)이다. 사물을 볼 때는 명백하게 보도록 생각하라. 모든 사물은 똑바로 보아야 하며, 사실 없이 평상심으로 분명하게 보아야 한다. 둘째는 청사충(聽思聰)이다. 들을 때에는 빠뜨리지 않고 똑똑하고 총명하게 듣기를 생각하라. 어중간하거나 적당히 흘려들지 말고 싫은 소리, 좋은 소리 나쁜 소리 모두 다 겸손히 잘 들어야 한다. 셋째는 색사온(色思溫)이다. 얼굴빛을 부드럽고 온화하게 하기를 생각하라. 항상 얼굴 표정은 따뜻하고 편안하게 미소 띤 얼굴로 겸손하고 공손하게 대하라. 넷째는 모사공(貌思恭)이다. 자태를 공손하게 하기를 생각하라. 몸가짐을 낮추어 공손히 하고, 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라. 세상을 편안하게 사는 지혜이다.

다섯째는 언사중(言思忠)이다. 말은 성실하게 하기를 생각하라. 말할 때는 차별 없이 진실하게 존칭어로 말하라. 여섯째는 사사경(事思敬)이다. 일에는 조심하기를 생각하라. 일을 할 때는 신중하게 임하라. 정직하고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라. 일곱째는 의사문(疑思問)이다. 의심나는 것에는 물기를 생각하라. 의심이 나면 반드시 물어보고, 겸손하게 질문을 하라. 그래도 이해가 안 가면 예의를 갖추어 여쭙어보라. 공하고 겸어두면 평생 모른다. 여덟째는 분사난(忿思難)이다. 화가 날 때는 어려움을 당할 것을 생각하라. 분노하거나 그 다음을 생각하라. 분노는 불길 같고, 태워서 재만 남는다. 아홉째는 견득사(見得思義)이다. 이득을 보면 그것이 의(義)로운가를 생각하

라. 의롭지 않은 이득은 독이 되니, 사욕이나 물욕에 집착하면 결국은 불행을 초래한다. 이상 아홉 가지 내용은 공자가 ‘군자가 항상 염두에 두고 실천해야 할 항목’을 말한 것으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야 진짜 사람임을 깨우쳐 주는 내용이다.

그리고 공자는 계씨편에서 스승이나 윗사람을 대할 때에 갖추어야 할 예의에 대해 언급하면서, 군자를 모실 때 저지르기 쉬운 세 가지 과실(하물)인 유삼견(有三愆)이 있다고 하였다. 남이 말하기도 전에 먼저 말을 꺼내는 것은 경망함인 위지조(謂之躁)이요, 상대방이 말하였는데도 말하지 않음은 숨김인 위지은(謂之隱)이요, 상대방의 안색을 살피지 않고 말함은 눈치가 없는 위지고(謂之瞽)인 것이다.

또한 군자는 세 가지 경계할 것이 있다(君子有三戒)고 있다 했다. 젊었을 때는 혈기가 안정되어 있지 않아 여색을 경계하고(戒之在色), 청년기에는 혈기가 왕성하므로 싸움을 경계하고(戒之在鬪), 노년기에는 혈기가 쇠잔하여 물욕을 경계하라(戒之在得)하였다. 그리고 공자는 군자에게는 세 가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다(君子有三畏)고 했다. 군자는 천명(天命)과 대인(大人), 성인의 말씀(聖人之言)을 두려워해야 한다. 그러나 소인(小人)은 천명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대인을 존경하지 않고, 성인의 말씀도 경멸한다고 하였다.

오늘은 논어 계씨편에서 제시한 사람을 깨우쳐 주는 아홉 가지 실천 항목과 군자가 윗사람을 대할 때 범하기 쉬운 과실, 경계할 내용과 두려워할 것 세 가지씩 언급을 했다. 비록 2,500여 년 전의 공자 말씀이지만 지금도 깊이 새길 철학이요, 생활 지침서임에는 틀림이 없다.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통일역사관의 기본 입장

1) 동시성(同時性) 섭리의 법칙  
하나님의 섭리 역사는 섭리 적 중심인물들이 책임분담을 불 이행함으로써 연장되곤 하였다. 한 단계의 섭리가 연장될 시기에는 그 단계의 섭리적 비슷한 인물, 사건, 기간 등을 다음 단계에 새로 세우고 섭리한다. 따라서 역사상에는 내용이 비슷한 시기가 나타나게 된다. 이것을 동시성 섭리의 법칙이라 한다.

2) 전형적인 예가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간의 섭리의 내용과 예수 이후 재림시기인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2000년간의 섭리의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는 사실이다. 즉 아브라함-예수까지의 섭리와 예수-재림주까지의 섭리는 완전한 동시성 섭리적인 것이다. 따라서 아브라함 이후 2000년간에도 나타나게 된다.

3) 섭리법칙의 객관성  
이상의 섭리의 제법칙, 즉 창조 법칙과 복귀 법칙은 모두 실제로 역사상 나타난 엄연한 현실적 법칙이며 뿐만 아니라 인간의 의지나 예상과는 독립해서 작용한 순전히 객관적인 법칙들이었다. 이 섭리의 법칙처럼 정확히 역사상에 적용되었고 또 실증되는 법칙은 타 역사관에서는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반하여 공산주의 유물사관 법칙은 모두 과학적 객관적인 법칙이라고 주장되고 있으나, 실제로 역사상에 그 어느 것 하나도 적용된 사례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그들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유물사관의 제 법칙은 순전히 관념적 주관적인 사이버 법칙인 것이니, 유물사관이야말로 사회과학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권수웅 대종회 부회장(좌요공파 38세)

복귀 섭리의 제 법칙이 이와 같이 실증적, 객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통일 사관은 앞으로 당연히 사회과학에서 진지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4. 발전의 법칙과 전환의 법칙  
1) 발전의 법칙: 역사의 발전을 지배한 법칙은 수수작용의 법칙(수수법)이며 변증법이 결코 아니다. 발전이란 성장, 발육, 향상과 더불어 새로운 질이 출현하는 불가역적인 조화로운 전진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서 투쟁에 (변증법)에 의해서는 결코 조화로운 성장이 이루어질 수 없다. 왜냐하면 발전은 공동목적과 공동방향에 세워진 가운데 이루어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상충이나 대립이 나타날 수 없다. 투쟁에는 파괴만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역사상에 나타난 어떤 형태의 발전이나 어떤 종류의 발전이거나 예외 없이 수수법에 의해서 만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2) 전환의 법칙: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두 가지 방향을 향하여 변경되어왔다 하나는 발전의 방향이고, 하나는 회전 즉 복귀의 방향이다. 발전은 고도로 발달한 과학 문명의 세계를 지향하는 발전이요 복귀는 잃어버린 창조 이상의 사랑과 평화의 세계로 돌아가는 복귀인 것이다, 고로 역사 발전과정에서 때때로 방향 전환이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되며, 이 시기에 나타나는 분립의 법칙 및 상극의 법칙(주체와 주체는 서로 반발한다는 법칙)이다.

이 세 법칙에 의해서 선악의 투쟁이 벌어지게 되며 이때 선편(하늘편) 이 승리하면 역사의 방향이 보다 더 선한 편으로 보다 더 하늘편으로 전환하게 된다.

이러한 전환이 계속되어 온 것이 오늘날까지의 인류 역사이며 앞으로도 더 계속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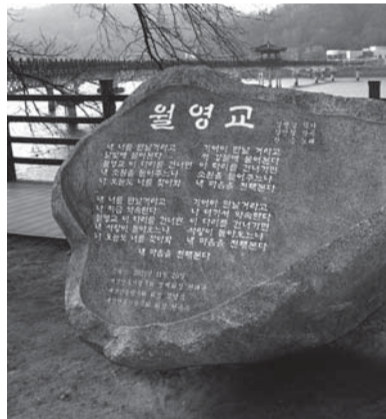


것이며 드디어 본연의 창조 이상의 세계를 완전히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인류 역사는 선과 악의 투쟁의 역사였으며 결코 계급투쟁의 역사가 아니다. 그러나 역사 방향의 전환에 반드시 투쟁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악이 선편에 순순히 굴복하거나 평화적으로 선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투쟁 없이 전환이 이루어진다.

〈끝〉

가수 권승, 사랑이 이루어지는 월영교



안동 월영교 산책길에서 9월 22일 밤 가수 권승(본명 권승승)씨를 만났다. 권승씨는 부정공파 38세로 1955년생이다. 젊은 시절에는 코오롱에서 근무하였고 은퇴 후 60세에 KBS 전국노래자랑에서 수상한 후 향토가수로 활동하고 있다. “월영교” “황소바람” 등이 대표곡이다. 지금은 안동을 비롯한 인근 지역 행사에 빠짐없이 초대되어 지역민과 함께 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다. 그 덕분에 향토가수로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 권태윤 대종회 부회장의 노력과 안동시 후원으로 월영교 산책로에 ‘월영교 노래비’가 건립되었으며 각계에서 감사장과 공로패를 받아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월영교 경치처럼 아름답고 건강한 활동을 계속 이어가기를 기대한다.

권오상 사무총장

2024년 안동권씨능우회 9월 격월제 회의 개최

안동권씨능우회(회장 권오직) 주최 “2024년 9월 격월제 회의”가 9월 10일 오후 6시 30분 안동시 운안동 364 ‘제비원축산가든’에서 개최하였다.

권영호 사무국장의 사회에 따라 시조 묘소 망배, 상음례, 회장 인사 순으로 이어졌다. 권오직 회장은 인사말에서 “회원들은 무더운 여름을 지내느라 고생이 많았으며 추석이 다가오자 별초 때문에 전 회원 33명 가운데 절반이 조금 넘는 17명이 참석하여 다소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사무국장의 경과보고에서 지난 7월 27일 오후 5시 30분 두리원웨딩홀 5층 베리타홀에서 능곡회 창립기념 및 신, 구 회장 이·취임식에 능우회원 15명이 참석하는 등 2건을 보고했다.

지난해까지 능곡회원으로 있었던 3명이 나이 제한 때문에 이날 능우회에 입회했다. 이로써 현재 능우회원 33명이 36명으로 늘어났다. 임회한 회원은 권중익(32세, 동정공파, 동인출판인쇄 대표), 권기혁(36세, 부정공파, 삼창상회 대표), 권기원(36세, 별장공파, 디캐베 북안동대리점) 등 3명이다. 입회 회원 3명 가운데 권중익 회원만 참석,



인사말에서 “선배님들이 닦아놓은 길을 따라 가겠다”고 말했으며 2명은 개인 불일 때문에 불참했다. 회원들은 불고기를 곁들여 저녁 식사를 하고 헤어졌다. 능우회는 두 달마다 한 번씩 홀수 달에 회의를 갖는다. 권영건 보도부장

서울지역종친회 유적지 참배

회원 여러분!

이번에 참배할 유적지는 경기도 여주시에 위치한 세종대왕릉·신릉사·명성왕후 생가입니다. 많은 참석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24년 10월 13일, 일요일

♣ 집결장소 : 전철 경강선 여주역 대합실 10시

♣ 유 적 지 : 경기 여주시 버스 투어 (세종대왕릉·신릉사·명성왕후 생가)

◆ 연락처 :

- 회 장 권영복 010-2456-6865
- 사무국장 권순휘 010-3797-1874
- 총 무 권지은 010-5413-0287

2024년 10월 1일

안동권씨 서울지역종친회 회장 권영복

서울산악회 제342차 정기산행 안내

회원 여러분!

서울산악회 제342차 정기산행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24년 10월 20일 10시 (시간엄수)

♣ 집합장소 : 3호선 구파발역 1번 출구

♣ 산 행 지 : 북한산

♣ 준 비 물 : 도시락, 간식, 개인 필요장비 지참

- 회 장 권정찬 : 010-5392-6222
- 등반대장 권오윤 : 010-9027-6179
- 총 무 권혁구 : 010-2240-4242

2024년 10월 1일

안동권씨 서울산악회 회장 권정찬